

무사고 10년을 이어온 정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능동적 대처, 에너지 절감 정책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과 환경캠페인 등 계몽활동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환경에너지시설 홍보관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있는 기업, 환경관리공단 일산사업소는 2006년까지 3회 연속 다이옥신 제로화와 함께 외부 안전기술지도 기관과 연계한 안전체제로 무사고 10년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일산사업소의 공정

고양시민의 가정에서 분리수거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쓰레기 저장고에 투입하면서 세부적인 쓰레기 소각공정이 시작 된다.

소각공정을 비롯해 환경에너지시설에는 크게 쓰레기 반입 및 공급설비, 냉각설비, 여열이용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쓰레기 처리 공정에서의 위험성

소각공정은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

로 설비의 빠른 부식과 기능의 오동작 등으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나 모든 공정과 설비가 첨단 장비와 자동화 설비로 되어 있어 공정 중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요소는 없다. 그러나 설비의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오작동 등에 의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일산사업소는 환경에너지시설의 특성상 매년 4회에 걸쳐 대대적인 정기보수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또한 많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된다.

따라서 주요설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





지난 10년 무사고를 지속시켜 나가는 일산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공단은 안전하고 철저한 생활폐기물 소각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양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외적인 사항이 있다면, 내적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직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그 가족을 지켜낸다는 사명감으로 무사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무사고를 이어온 정신이기도 합니다.



▲ 전웅열 소장

저는 일산사업소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안전한 일산사업소를 일궈온 선배 소장들의 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현재,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와 정기적인 월례 조회를 통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 공조체제에서 무재해 일산사업소를 유지하고 있고, ISO 14001 도입으로 전문요원의 설비운용과 안전분야 등에 매 반기마다 실시하는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외국 선진 폐기물소각 사업 분야의 안전관리를 벤치마킹하며 우리 환경관리공단만의 안전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화와 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위험요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작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책임실명제를 통한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한 일산사업소, 무재해 10년 지속

가스상 물질 등으로 설비의 지속적인 제 기능 발휘와 유지가 어려워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산사업소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자율적인 책임실명제이다. 직원 개개인이 주요 기기별 운영, 점검, 정비 및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본 제도는 노후화된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 정비함으로써 안전 사고와 고장을 미연에 예방하고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자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 관리이다.

이를 시행한 결과 많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환경관리공단의 2006년도 상반기 경영혁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근로자 39명인 일산사업소는 외부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관리협회 경기북부지회와 현장 안전관리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과 매월 월례조회 시, 정기회의 시, 수시 공정회의 시, 매일 작업 전·후 5분씩 등 안전교육으로 안전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안전한 일산사업소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종덕 기자〉